

독서수업  
지도안  
학생용

초등학교 4학년

#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

송언 글 | 유승하 그림 | 웅진주니어 | 144쪽


## 독서수업 주안점

-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
-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
-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
-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
-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



## 표지 탐색하기

이름 :

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.

1) 책 제목 ‘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’를 보고,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?

⇨

2)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?

⇨

3) 책 뒷표지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할아버지 선생님요, 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,  
 우리들이랑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.  
 우리들이요, 이 학교에 와서 만난 첫 번째 제자라고요.  
 그리고 서로 오래오래 잊지 말자고 말했어요.  
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.

① ‘할아버지 선생님’은 ‘나’의 몇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가요?

⇨

② ‘할아버지 선생님’이 ‘우리들’이랑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했나요?

⇨



# 어휘력 쑥쑥 키우기(1)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

- (가) · 엄마가 일러 준 대로 말도 잘 전했어요.  
 ·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속했어요.  
 · “날마다 오던 제자가 안 오니까 허전해서 말이야.”  
 · 선생님은 입술을 한 차례 삐죽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.  
 · 그러다가 11월이 되고,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살살 불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.
- (나) · 엄마는 가끔 나를 의심했어요. 나는 ㉠        는 대꾸를 안 했어요. 엄마가 하는 말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.  
 · 나는 여느 때처럼 털레털레 4학년 1반으로 갔어요. 작년과 재작년엔 할아버지 선생님 교실에 가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어요. 그런데 4학년에 올라온 뒤엔 늘 발걸음이 ㉡    이었어요.

1) (가)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.

- ① 무엇이라고 말하다.
- ② 마음이 들떠서 갈팡질팡하고 어수선하다.
- ③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다.
- ④ 무엇을 잃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같이 서운한 느낌이 있다.
- ⑤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다.

2) 다음 뜻을 참고하여 (나)의 빈칸 ㉠~㉡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.

- ㉠ :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.
- ㉡ : 무게가 천 근이나 만 근이 된다는 뜻으로, 아주 무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## 어휘력 쑥쑥 키우기(2)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

- (가) · 그리고는 (        )을 뜨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.  
 · “참 묘한 (        )이다.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첫 (        )은 소중한 거야.”  
 · “나중에 나만 (        ) 보면 어떡해?”  
 · 할아버지 선생님은 상장 (        )을 고쳐 큼지막하게 계약서를 썼어요.  
 · 4학년 1반 여자애들은 날 (        )까지 밀어붙였어요.
- (나) · ㉠나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. 순서대로 교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3학년 1반을 찾은 건 식은 죽 먹기이지요.  
 · ㉡나는 이따금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썼어요. 날마다 찾아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였는데, 편지를 쓰려니까 무척 힘이 들더라고요.  
 · ㉢죽 쑤어서 개 준다고 했나요. 4학년 1반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꼭 죽 쑤어서 개를 준 기분이었어요.

1) (가)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.

- ① 양식 :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.
- ② 뱀새눈 : 작고 가늘게 찌진 눈.
- ③ 인연 :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.
- ④ 손해 :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집.
- ⑤ 계단참 : 층계의 중간에 있는 좁 넓은 곳.

2) (나)의 ㉠과 ㉡에서 서로 뜻이 비슷한 속담을 각각 찾아 쓰세요.

- ⇒ ㉠ :  
 ㉡ :

3) (나)의 밑줄 친 속담 ㉢의 뜻을 써 보세요.

⇒

## 졸업 전 날 / 나의 평범한 1학년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나는 6년 동안 한 학교를 다녔어요. 그런데 5년 동안 한 선생님을 쉬지 않고 찾아다녔어요. 정말이에요. 나는 거짓말 못해요. / 아이들은 대개 6년 동안 여섯 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지요. 당연히 나도 여섯 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.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한 선생님을 쉬지 않고 찾아다녔으냐고요?

(나) “① 너희들은 선생님이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이다. 그리고 너희들에게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바로 나지. 참 묘한 인연이다.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첫 인연은 소중한 거야. 오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. 서로 잊지 말고 오래오래 1학년 2반을 기억하자. 귀여운 나의 제자들아, 잘 가거라.” /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.

“선생님, 내년에 우리 학교를 떠나세요?”

“그건 아니야. 앞으로 4년 동안 이 학교에 있을 거야. 하지만 다시 너희들의 담임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단다. 오늘로 1학년이 끝나고, 2학년에 올라갈 때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니까.”

1) (가)에 나타난 ‘나’(승민이)의 학교생활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지 쓰세요.

⇨

2) (나)에서 ‘선생님’은 1학년을 마친 ‘1학년 2반 아이들’에게 ①과 같이 말했습니다. 여러분에게 ‘처음’이란 말은 어떤 느낌인지 써 보세요.

## 여기서 꼭 기다리세요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할아버지 선생님이 터벅터벅 다가오더니 물었어요.

“승민이 어제도 왔었잖아. 무슨 일 있니?”

무슨 일이 있다니요. 나는 그냥 오래오래 서로 잊지 말자는 뜻으로 찾아온 것뿐이에요.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서 있었어요. 할아버지 선생님은 재빨리 막대사탕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었어요. / “다음에 또 오너라.”

나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3학년 1반 교실을 나왔어요. 할아버지 선생님은 막대사탕 때문에 내가 또 찾아왔나,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. 그게 나는 좀 슬펐어요.

(나) 내가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속닥속닥 말해 줬어요. / “제가 곧 3학년에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교실로 가지 말고, 3학년 1반 교실에 그냥 있어요. 제가 3학년 1반이 되어 갖고 여기로 올게요.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?”

“못 알아들었다.” / “정말 이럴 거예요?” / “아니, 알아들었다.” / “그럼 이제 됐어요.”

나는 3학년 1반 교실을 나와 2학년 5반 우리 교실로 갔어요.

이제 내가 3학년 1반이 되는 일만 남았어요. 나는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. 정말 3학년 1반이 될 것만 같았답니다.

- 1) (가)~(나)에서 ‘나’(승민이)와 ‘할아버지 선생님’의 대화를 정리해 봅시다.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(가) : ‘나’가 할아버지 선생님을      
할아버지 선생님은 재빨리     하  
나를 꺼내 ‘나’의 손에 쥐어 주며   에  
또 오라고 말했다.

(나) : ‘나’가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   
  로 가지 말고     에  
그냥 있으면 자신이 3학년 1반이 되어 갖  
고   로 오겠다고 말했다.

- 2) (가)에서 ‘나’(승민이)가 ‘할아버지 선생님’ 때문에 슬펐던 이유를 쓰세요.

⇒

## 계약서 써 주세요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“할아버지 선생님요, 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요, 우리들이랑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. 우리들이요, 이 학교에 와서 만난 첫 번째 제자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할아버지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. 그리고 서로 오래오래 잊지 말자고 말했어요.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. 날마다 찾아가지 않으면 금방 잊게 되잖아요.” / “와,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. 대단한데. 그럼 말이야, 언제까지 할아버지 선생님 교실에 찾아갈 건데?”

“할아버지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을 때까지요. 그다음엔 저도 잘 모르겠어요.”  
선생님이 입술을 삐죽하며 중얼거렸어요. / “5학년 10만 선생님은 참 좋겠다.”

(나) “선생님, 이제 계약서 써야 해요.” / 할아버지 선생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

“뜬금없이 무슨 말이야?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써?”

“이번 주부터 제가 5학년 10만 교실에 월, 수, 금요일만 올 수 있다는 계약서 말이에요.” / “아, 그런 계약서. 엄마가 받아 오래?”

“아니요. 아빠가 받아 오래요. 날마다 찾아가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실 거래요. 계약서 써 줄 거예요?” / 할아버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.

1) (가)에서 ‘나’(승민이)가 말한 ‘할아버지 선생님’을 찾아가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. 각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할아버지 선생님은 ‘나’의 □□□□ 때 담임  
선생님인데, 헤어질 때 ‘나’가 □□□□에  
와서 만난 □□□□□□라고 했음.

서로 오래오래 □□□□고 말해서 □□□□  
□□□□ 찾아가는 것이고, □□□□ 찾아가지 않  
으면 금방 □□□□고 말했음.

2) (나)에서 ‘나’(승민이)와 ‘선생님’이 써야 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쓰세요.

⇨



# 나의 슬픈 4학년

이름 :

💡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4학년 1반 여자애들이 날 뒤로 밀었어요. 나 혼자 어떻게 예닐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당해 내겠어요. 당연히 뒤로 물러났죠. 날 밀어내며 장한나가 씩붙였어요.

“다시는 우리 교실에 오지 마. 이제 우리 선생님이니까.”

4학년 1반 여자애들은 날 계단참까지 밀어붙였어요. 나는 계단참에 쪼그리고 앉았어요. 정 말 비참했어요. 영영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. 나는 속으로 울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. / “애들아, 가자!” / 장한나가 돌아서며 내게 경고했어요.

“또 우리 교실에 오면 그땐 널 때려 줄지도 몰라. 그러니까 오지 마!”

(나) 나는 이따금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썼어요. 날마다 찾아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였는데, 편지를 쓰려니까 무척 힘이 들더라고요. 내가 메일을 보내면 할아버지 선생님은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 줬어요.

뒤편,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. 제자와 선생님 사이에 편지 주고받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겠어요. 또 막상 몇 차례 편지를 쓰고 나니까 별로 할 말도 없더라고요. 그것참, 이상하지요. 그래서 차츰차츰 편지 쓰는 일도 시들해졌어요.

1) (가)에서 등장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.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4학년 1반 여자애들 예닐곱 명이 ‘나’를 □로 밀어서 물러났고, 장한나가 □□ 우리 선생님이니까 다시는 □□ □□에 오지 말라며 □□□□.



4학년 1반 여자애들은 ‘나’를 □□ □□까지 밀어붙여서 □□□□ 앉았고, 장한나가 돌아서며 또 우리 교실에 오면 널 □□ □□□ □□□며 □□□□.

2) (나)에서 ‘나’(송민이)가 ‘선생님’을 찾아가는 것과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것의 차이를 파악하여 쓰세요.

⇒

## 전근 가지 마세요 / 졸업하는 날

이름 :

💡 <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>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“전근 가지 마세요.”

“너무 늦었다.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게 안 보이니?”

“내년에 6학년 하라고 조르지 않을게요. 담임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보채지도 않을게요. 그러니까 전근 가지 마세요.” / “쫄쫄”

“이 학교에 1년만 더 있어요. 가더라도 제가 졸업한 다음에 가세요.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꼭 전근을 가야 해요?” / “쫄쫄” / “선생님이 없으면 전 어떻게요.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 있으면 아무 때고 선생님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잖아요. 다른 학교로 가면 어떻게 날마다 찾아가요.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. 선생님이 학교에 없으면 제가 너무 슬프잖아요. 정말 갈 거예요? 가지 마세요. 네?”

(나) 지금쯤 식구들이랑 자장면을 먹고 있겠군. 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.

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? 내가 오늘 송언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? 생각해 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. 어쩌면 지난 6년 동안 나는 송언 초등학교를 다닌 것인지도 모르니까요. 짹하게 답장 메시지를 보냈어요.

졸업 축하하러 온대 놓고 왜 안 왔어요?

1) (가)에서 ‘나’(승민이)는 ‘선생님’에게 이 학교에 1년만 더 있으라며 전근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. 이러한 ‘나’(승민이)의 마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 또는 느낌이 드는지 써 보세요.

⇒

2) (나)에서 ‘나’(승민이)가 ‘송언 초등학교를 졸업했다’는 것은 어떤 뜻인지 파악하여 쓰세요.

⇒

## 독해력/표현력 쑥쑥 키우기

이름 :

1) 다음은 〈축 졸업 송언 초등학교〉에 나온 그림들입니다. 각각의 그림을 보고, ‘나’(승민이)와 ‘선생님’에게 언제,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써 보세요.



①



②



③

2) 이 책에서 ‘나’(승민이)는 ‘할아버지 선생님’을 잊지 않기 위해 5년 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. 여러분이 잊고 싶지 않고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써 보세요.







## 정답과 해설

3쪽	<p>(예시답안) 1) 송언 초등학교의 졸업을 축하하는 6학년 선배의 모습이 생각났다.</p> <p>2)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 사진을 찍고 있는 운동장에서 안경을 쓴 단발머리의 6학년 졸업생이 오른손에 꽃다발과 졸업 앨범을 들고, 왼손으로 V자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.</p> <p>3) 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         ② 이 학교에 와서 만난 첫 번째 제자가 우리들이고, 서로 오래오래 잊지 말자고 말했다.</p>
4쪽	<p>1) ①, ⑤, ④, ③, ②      2) ㉠: 시치미를 뚝 떼고, ㉡: 천근만근</p>
5쪽	<p>1) ②, ③, ④, ①, ⑤      2) ㉠: 식은 죽 먹기, ㉡: 누워서 떡 먹기</p> <p>3) 애써 한 일을 남에게 빼앗기거나, 엉뚱한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했을 때를 이르는 말.</p>
6쪽	<p>1) 5년 동안 한 선생님을 쉬지 않고 찾아다녔던 것</p> <p>2) (예시답안) 처음이란 새롭게 겪은 일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. 처음으로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, 처음으로 사귀게 된 친구, 처음 가본 여행지, 처음 배운 다양한 운동 등을 생각해 보면 처음이란 말은 새롭고 가슴이 설레고 좋은 느낌이 드는 말 같다.</p>
7쪽	<p>1) ·(가): 찾아가자, 막대사탕, 다음          ·(나): 다른 교실, 3학년 1반 교실, 여기</p> <p>2) 할아버지 선생님은 막대사탕 때문에 '나'가 또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</p>
8쪽	<p>1) 1학년, 이 학교, 첫 번째 제자 / 잊지 말자, 날마다, 날마다, 잊게 된다</p> <p>2) '나'가 5학년 10반 교실에 월, 수, 금요일만 올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</p>
9쪽	<p>1) 뒤, 이제, 우리 교실, 싸붙였음 / 계단참, 쪼그리고, 때려 줄지도 모른다, 경고했음</p> <p>2) '나'가 날마다 선생님을 찾아가기는 쉬웠는데, 편지를 쓰려니까 무척 힘이 들었음</p>
10쪽	<p>1) (예시답안) 승민이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, 보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없으니 너무 힘들고 슬플 것 같다고 말했다. 승민이가 선생님을 5년 동안 쉬지 않고 찾아다녔으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다. 선생님을 좋아하는 승민이가 가련하고 불쌍했다.</p> <p>2) 지난 초등학교 6년 동안 '나'가 송언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졸업했다는 뜻이다.</p>
11쪽	<p>1) ① 2학년 때, 할아버지 선생님이 '나'에게 막대사탕 두 개를 쥐어 주는 장면          ② 4학년 때, '나'가 찾아가더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          ③ 5학년 때, 할아버지 선생님이 전근을 간다는 말을 듣고 '나'가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오는 장면</p> <p>2) 생략</p>



# 응진주니어

값 8,500원



KCC 마크는 이 제품이  
광동안전기준에 적합  
하였음을 의미합니다.

△주의

책 모서리에 다치지  
않도록 주의하세요.

ISBN 978-89-01-10568-0  
ISBN 978-89-01-03863-6(세트)